

양계산업 분야에서 위생 방역의 정착방안



박 근 식
본회 위생방역대책위원회
위원장, 농학박사

1. 한국양계의 회고와 우리의 각오

파란만장했던 20세기를 회고하면서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 준비에 온 세상이 떠들석하다. 우리의 조상들은 한반도에 정착, 고대부족사회부터 닭과 인연을 맺어 우리민족과 애환을 함께 하여 왔으며 유입 경로는 동남 아시아 원산지에서 비롯되어 다른 가축과는 그 유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민족사에서는 닭이 근면, 부귀를 상징하며 신성한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길조(吉鳥)라 일컬어 한때는 나라 이름을 계림(鷄林)으로 삼았던 때도 있었다. 닭은 뜰에서 시각을 알리고 귀한 손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쳐 몸과 알을 제공하여 인간을 위해 희생하

여 왔을 뿐만 아니라 닭은 다섯 가지 덕목(德目)을 지녔다고 칭송되어 왔었다.

닭의 벼슬은 문(文)을, 발톱은 무(武), 용감하게 싸우는 자세를 용(勇), 먹이를 보고 동료의 무리를 부르는 것은 인(仁), 때를 맞추어 새벽을 알리는 것은 신(信)이라고 해서 文武勇仁信 다섯 가지 덕목을 지녀 「귀신 잡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우리들의 삶에 정신적인 교훈과 풍요를 제공하여온 동물임을 생산자와 소비자 공히 이를 알고 감사해야한다.

이러한 정신적인 면 이외도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유익한 것들을 제공하여 왔다. 알과 고기 그리고 털과 계분에 이르기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식생활의 변천을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곡물을 중심으로 한 전분(澱粉)식품시대를 지나 지금까지는 축산식품으로 한 단백질식품 시대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 시기가 지날 무렵에는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비타민 식품시대로 이미 단백질식품 시대와 비타민 식품시대가 겹쳐지기 시작되고 있다.

특히 계분은 다른 축분과는 달리 21세기의 단백질식품 시대와 비타민식품시대의 공존에 필수 불가결의 자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20세기까지 천덕꾸러기 계분이 채소와 과일생산을 위한 대지의 흙에 생명을 불어넣는 뛰어난 토양의 활력소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21세기는 양계와 비타민 농업과 연계하여 닭과 식물이 갖는 특성을 살려 순환형 또는 환경친화농업에도 크게 기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닭의 거룩한 섭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지혜로운 양계인이 됩시다.

최근에 와서 계란과 닭고기는 지방식품이 아니고 단백질식품으로 각광을 받아 선진국에서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계를 선도했던 양계기업이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 되었는지 깊이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양계 동업인들의 무모한 과잉생산에서 비롯되었으며 양계인들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택하였기 때문이기에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그 동안의 무모한 규모 확장에 의한 생산량의 경쟁 보다 현대양계의 과학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경쟁으로 전환하여 생산가격 경쟁과 적절한 위생관리를 통해 계란과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로서 생산물의 품질경쟁에 승부를 걸어 진정한 양계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갖는 의식개혁에 모두 참여하는 새 천년이 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40여년간 한국 양계와 함께 걸어오면서 한국양계가 그 동안 등한시 하여온 방역과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를 통감하고 그 막중한 책임을 맡기로 뜻을 굳히고 40여년간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양계의 미래를 위해서 몸 바쳐 일할 각오로 위생방역의 정착 방안을 제시하오니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좋은 고견을 제안하여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양계산업을 굳건한 방석에 올리는데 우리 모두가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자.

2. 한국양계 개발과 여건변화

한국양계는 후발 산업으로 늦게 출발하였으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의 추진에 힘입어 농가 부업 또는 유축농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양계 기반 조성기(부화협회, 가금협회 설립, 종계 PS, GPS와 사료 도입, 닭 사양수수 500만수)를 거치는 동안 농가 부산물인 밀기울 등의 자가배합사료에 의존하는 양계로서 때로는 사료부족으로 인하여 양계업이 타격을 받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6~1970)기간의 닭 사양수수가 크게 신장하여 닭 사양수수가 1,028만수로 2배가 늘어, 연간 20%의 고도성장을 이루는 성장기를 맞이하였다.

이 기간에 채란 용 종계가 PS 33종(년간 약 15만수도입), GPS 5종(년간 약 5천수도입)으로 종계의 국제전시장을 방불케 하였으며 당시 양계기술은 하계 전국순회양계강습회를 통해서 분야를 초월하여 학계 및 연구분야가 동원되어 강습과 양계전문지(월간 현대양계 1968년, 월간 양계 1969년)를 통해서 양계기술이 매년 생산 현장에 보급되어 우리 나라 축산업 중 가장 선도산업으로 육성되었다.

그러나 양계 붐은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중국에는 양계업은 불황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유류 파동까지 겹쳐, 병아리생산 조절을 위해 외국에서 수입하던 종계의 도입 조절 또는 중지하는 극 처방까지 동원되어 1975년 이후에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 때 외국 종계 도입이 중단되거나 조절로 인하여 병아리 공급이 어려워 국산 종계의 개발이 시작되어 활기를 찾기 시작하여 한협,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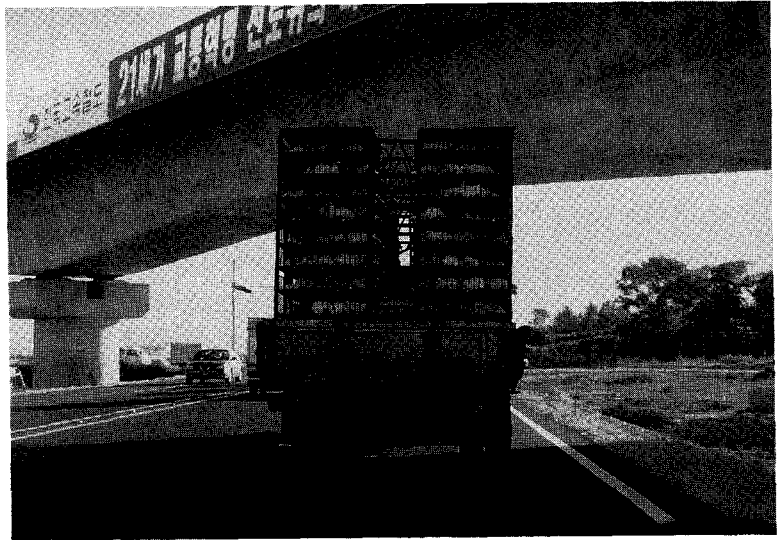
니나, 마니커 등이 등장하였다.

그후 종계도입 개방 압력에서 UR, WTO로 이어 지면서 정부에서는 국제경쟁강화 정책으로 농업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43조원의 막대한 자금 지원으로 양계분야에서는 생산 시설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시하면서 생산 규모가 확충되면서 양계산물의 과잉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IMF와 환차에 의한 리스자금의 압박 등으로 많은 양계장이 고통을 받았으나, 계속 생산분야는 미국식의 경영통합체계가 이루어져 외형상으로는 총 물량의 75%를 점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한국 정서에 맞는 그리고 기술혁신의 경영방식이 도입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이 한국양계를 개발하면서 그 동안 생산의 확충과 과잉생산에 의한 불황을 반복하여 양계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축적을 하지 못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을 하지 못하여 경쟁국 보다 떨어지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닭의 전염성질병이 1970년대에는 불과 16종이 지금은 33종에 이르고 있으며 악명 높은 뉴캐슬병은 주기적으로 대유행 할뿐만 아니라 1992년부터 살모넬라에 의하여 발생한 가금티푸스는 매년 그 피해가 커지고 있어 과거양계와는 달리 사양규모의 대형화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특히 질병 발생을 감소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약품은 계란이나 계육에 잔류하여 소위 약에 저린 식품으로 고유의 품미 마저 잃고 국민보건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드릴 시점까지 왔다.

양계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 이에 대응을 서두른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미래의 한국 양계를 위해 당연한 조치이다.



3. 위생방역 대책위원회 의 설치와 그 역할

1) 설치 근거

대한양계협회 정관 제4조 6호 및 본회 분과 및 전문위원회 규정 제3조 2항 3호

2) 설치 목적 과 목표

양계산물 생산에 관련되는 위생 과 방역에 관한 조사, 연구, 지도, 및 보급과 이 분야를 통해서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조정을 도모하여 양계경영의 안정(安定)적 발전과 안전(安全)한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으로 국민보건에 기여하며 축산진흥에 공헌한다.

가. 닭 질병의 예방관리로 생산원가 절감

국내 사육 닭에 대한 질병발생을 최신 예방 기법을 통해 예방관리하여 질병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양계산물의 생산원가를 절감한다.

나. 국가방역의 효율화 촉진

국가방역사업에 양계 인이 적극 참여하여 정부 방역사업의 효율화를 통해서 조기에 근절하여 건전한 양계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농가에서의 전염병 발생 위해 요소를 적극 배제하여 질병 발생의 위협에서 해방, 양계경영과 산물의 품질향상에 전념토록 하되 일 단계 사업

으로는 OIE List A 와 제1종 법정 전염병인 뉴캐슬병과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금티푸스병을 포함한 살모넬라병을 대상으로 한다.

다. 질병의 근원차단으로 생산농장에서의 질병 리스크를 최소화

종계장, 부화장 및 사료에서 유래하는 질병 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생산농가에서의 질병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라. 생산단계에서 질병 예방과 위생관리를 연계하여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으로서의 상품화 효율을 높인다.

3) 기능과 역할

전항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가. 닭과 계란, 닭고기의 위생에 관한 조사 연구와 기술 개발

나. 양계산물 생산 위생기술의 지도와 보급

다. 양계 위생과 방역기술 향상에 관한 연수 (양계 전문수의사, 방역관, 방역보조원, 종계 및 부화기술자 등)

라. 국가가 실시하는 방역사업에 능동적 참여로 향후 자위방역(자주 및 자기방역) 능력 함양에 관한 사항

마. 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법률 및 제도개선책을 발굴 정부에 적극 건의 실시

바.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

가. 닭 위생 및 방역 프로그램 수립과 추진

닭 질병 발생상황을 역학적으로 조사하여 리스크가 높은 질병 순으로 최소의 경비로 막을 수 있는 전략과 기법을 수립, 관계 기관 및 단체 와 양계농가에 제공, 필요시 연대하여 현지에 전문가와 기술 투입.

나. 닭의 건강 유지를 위한 위생 방역기술 지도

구제기구(OIE 등)등과 유대 하여 교역국가 및 주변국의 닭 질병 발생정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병성감정관련 기관 및 업체, 양계전담 동물병원, 컨설팅사, 사료와 동물약품 판매원들과 연대하여 정보수집,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 지도 또는 상담을 통한 지도

다. 협회 회원 종계장을 단계적으로 우수 종계장으로 격상

종계장, 부화장에 대한 위생지도를 통해서 우수 종계장 인정 제도에 적극참여 시켜, 우수 종계장으로 격상시켜 위생적이고 강건(強健)한 병아리 생산을 유도한다.

라. 생산단계별 HACCP 실행지침서 작성 지도

종계장, 부화장과 채란, GP 센터 및 육계농장, 도계, 처리 가공장에 HACCP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 실정에 맞는 실행지침서를 작성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마.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위해도 조사

생산농가에서의 HACCP 실행에 앞서 관련산업(사료, 환경, 생산물 수집, 유통판매 등)에 대한 위해도 조사실시

바. 양계산업 계열주체 업체에 대한 위생지도 지침서 작성

육계 계열주체에 대한 예방과 위생지도 지침서작성, 지도자료로 제공

사. 살모넬라 종합 대책 방안 작성 시행

종계, 채란, 육계 및 사료, 환경, 도계 등 모든 생산단계에서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특히 식중독 관련 살모넬라 오염을 최소화

아. 도외시되었던 위생 방역기술의 생산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과 전문가의 양성, 양계인으로서 긍지를 갖는 의식개혁을 위한 양계인 대회 개최와 적극적인 홍보 사업의 전개.

자. 양계산업의 과학화를 위해 양계산업 종합 실험실 설치 운영.

차. 정부 시책에 능동적으로 참여, 국가방역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뉴캐슬병 등의 악성전염병의 조기근절.

전국 양계농가와 양계관련 단체 및 사업체를 “뉴캐슬병과 살모넬라 퇴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닭 위생방역사업에 참가하여 한국양계산업을 안정산업으로 육성하는 성전에서 승리를 위해 정부와 마음 문을 열어 올바르게 건의하고 정부시책 수행에 협력 조력하는 분위기 조성.

4. 맺는말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에서 일차 단계로 시도하는 “뉴캐슬병과 살모넬라병 퇴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위생방역위원회의 출범과 이에

동참하여 백의종군하는 각오로 참여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지금 하고있는 종합계획이 전국 양계인의 축복속에서 합의되어 전국의 양계인 모두가 이 사업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하여 국가와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우리들의 고귀한 사명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지혜로운 길을 택하자.

필자는 1991년에 한국 양계 총생산액이 8,745 억원일 때 대장균증, 추백리, ND 등 11종의 감염병에 의한 직접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1,738 억원으로서 총 생산액의 20%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바 있다.

1995년도 양계 총생산액은 1조3,355억 원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감염병의 종류가 33종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계장의 규모도 커 감염병에 의한 직접 피해액이 총 생산액의 30%는 족히 되리라고 추산된다. 따라서 감염병에 의한 직접 손실액이 산술 평균으로도 연간 4,000억 원이 된다. 여기에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요인(생산물의 상품화 효율)과 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급 차질에 의한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자의 부담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피해액이 증가하여 중국에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성찰하여, 뜻있는 양계 인사들이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기필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택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이미 계획의 골격을 만들어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지금 현재 양계생산 농장에서 연간 4,000억 원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일차 연도는 준비 단계로 우리의 힘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본 계획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새 천년의 양계분야의

목표사업으로 즐기치게 추진해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지난달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이듬하여 뉴라운드(NR)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협상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 개발한 무기(과학적인 신기술)로 무장하여 백전백승할 수 있는 전술과 전략으로 선제공격(양계산물의 수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란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도 그 동안의 방역정책의 늪에서 벗어나는 개혁의 의지로써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전문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역에 걸림들이 되어 왔던 질병발생의 혼탁 및 방역수행과정에서 장애요소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체계를 가할 의지가 담겨 있고 또 가축 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가축방역 보조원제도까지 도입하고 있어 향후 방역 및 위생에 대한 우리들의 재인식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할 수 있다.

어떤 사회역사가는 한 시기가 끝남의 의미는 심판과 평가를 받는 태도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시작은 창조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제 한 해가 저무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끝나는 한 해이다.

우리 양계분야도 과거를 평가하고 심판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새 천년에는 우리 모두가 양계산업을 재창조한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기필코 우리가 바라는 양계산업을 안정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양계**